

몽테뉴, ‘나는 무엇을 아는가?’



(*Que sais-je?*)

혼란의 시대, 고독 속에서 피어난 자기 성찰과 관용의 철학

Inter

16세기 프랑스, 영국, 벨기에 초기 4세대 외부모의 '형'으로 100여 종류의 BURGUNDY, H. H., RIBAIS, BEEREN, 그는 세종의 친척이나 아버지나 형제나 남편이나 아내나 딸과 함께 BURGUNDY, H. H., RIBAIS, BEEREN, 그는 세종의 친척이나 아버지나 형제나 남편이나 아내나 딸과 함께



광기와 혐오의 시대, 16세기 프랑스

구교와 신교의 충돌

어제의 이웃이 오늘의 적이 되어 서로를 학살하던
야만의 시대.

불신의 일상화

‘내전은 집집마다 파수꾼을 세우게 한다.’ 몽테뉴는
집 앞 숲을 지나는 것이 인도로 가는 것만큼이나
위험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몽테뉴의 태도

어느 한 편에 맹목적으로 서기를 거부하고, 관용과 중재를
시도했으나 비겁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38세, 세상과의 작별을 고하고 탑으로 들어가다

1571년, 법관직 사임 후 몽테뉴 성의 원형 탑 서재로 은둔.

“ 미셸 드 몽테뉴는 뮤즈의 품으로 은퇴한다.
남은 인생을 조용하고 자유롭게 보내기를 바라며.”

동기: 절친한 친구 라 보에시의 죽음,
아버지와 동생의 잇따른 죽음,
그리고 공직 생활에 대한 회의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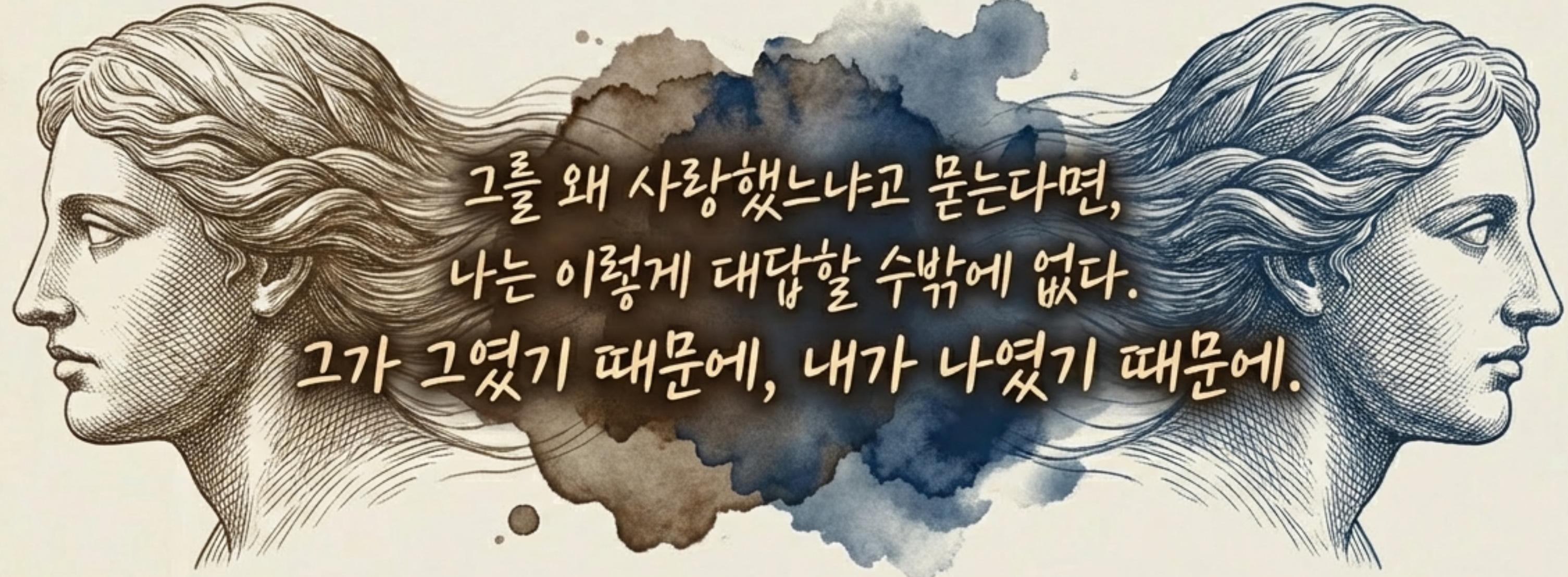




‘영혼을 깨우는 교육’ – 아버지의 실험

- ❖ **기상 음악:** 아버지는 어린 몽테뉴가 놀라지 않도록 매일 아침 음악 연주로 잠을 깨웠습니다.
- ❖ **라틴어 몰입:** 독일인 가정교사를 고용해 모국어(프랑스어)보다 라틴어를 먼저 습득하게 했습니다. 6세 때 이미 키케로를 읽을 수준이었습니다.
- ❖ **평민 체험:** 부유한 귀족임에도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도록 평민 가정에 위탁되어 자랐습니다. 이는 훗날 그가 계급적 편견을 갖지 않는 토대가 됩니다.

영혼의 단짝, 에티엔 드 라 보에시



그를 왜 사랑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

그가 그였기 때문에, 내가 나였기 때문에.

몽테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6년. 친구의 요절은 몽테뉴에게 거대한 상실감을 안겼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펜을 들어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1,000권의 책과 고독의 요새

HOMO NIHIL ESSE CERTUM POTEST

인간은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다.

3층 원형 서재. 그곳은 가족과 하인들
로부터 격리된 그만의 왕국이었습니다.

천장 들판에는 성서와 고전에서 발췌한
50여 개의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QUE SCAIS-JE?

나는 무엇을
아는가?

『에세(Essais)』: 시도하다, 시험하다

프랑스어 ‘Essayer’에서 유래.

완성된 진리를 설파하는
논문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시험해보고
맛보는 과정.



독자여,
나는 내 책의 소재다.

체계적이지 않고, 주제가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슬픔, 우정, 게으름,
심지어 엄지손가락에 대한
이야기까지.

~~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그린다 ~~



Confess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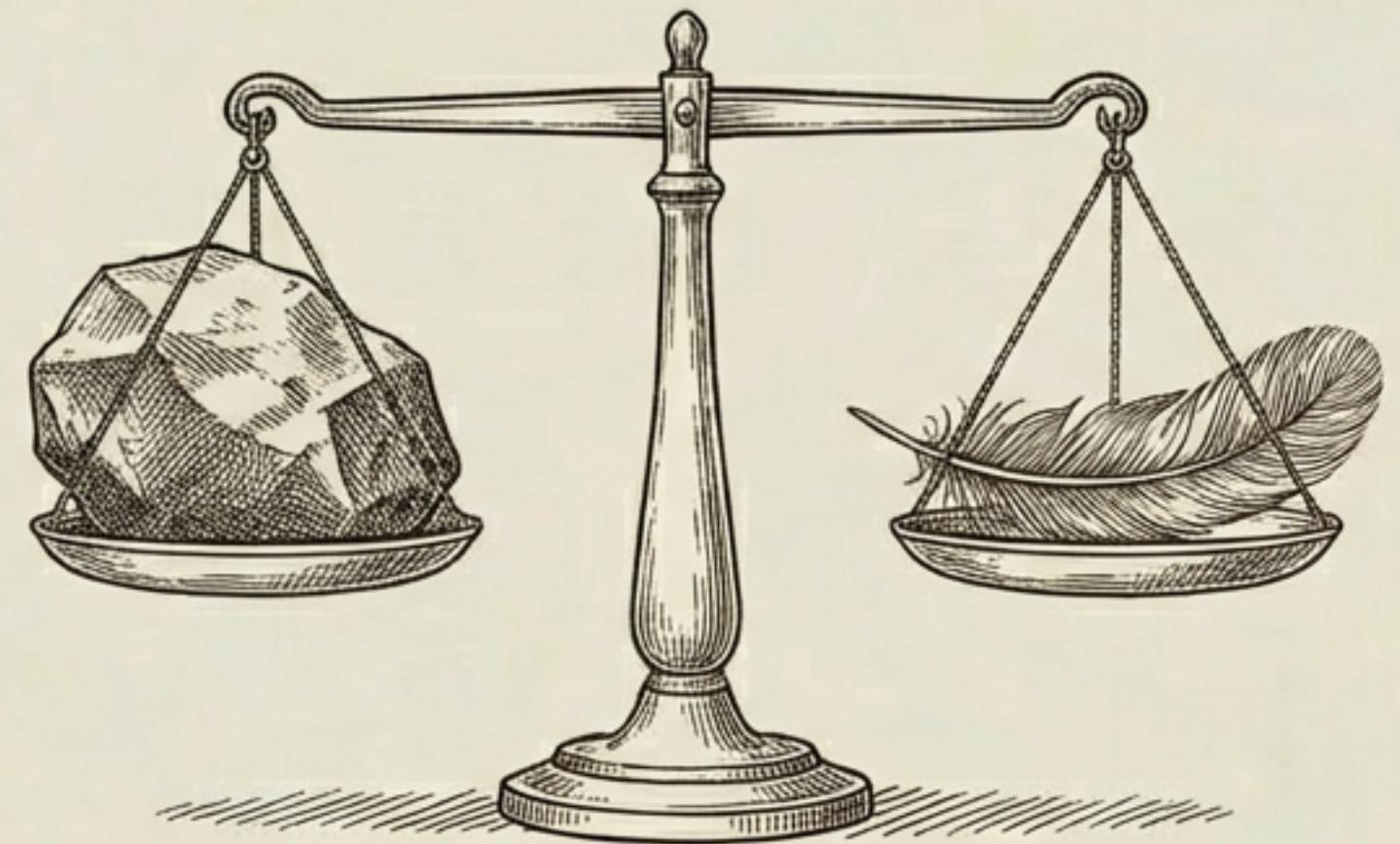
-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비겁함, 게으름, 성적 취향, 배변 습관, 건망증까지 가감 없이 기록했습니다.
- 나는 어제의 나다.
하지만 내일의 나는 또 다를 것이다.

영웅시된 자아(Hero)가 아닌, 모순 덩어리인 인간(Human)
그 자체를 긍정하는 것. 이것이 몽테뉴식 자존감입니다.



회의주의: '나는 무엇을 아는가?' (Que sais-je?)

Absolute
Certainty



Doubt

판단 중지 (Épochè)

우리가 확실하다고 믿는 것은 사실 편견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함으로써
독단적인 확신에서 벗어났습니다.

서로가 절대 선이라 주장하며 칼을 겨누던 종교 전쟁의 시대에,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관용과 평화를 위한 유일한 해법이었습니다.



문화 상대주의: '누가 진짜 야만인인가?'



『식인종에 대하여』

유럽인들은 신대륙 원주민의 식인 풍습을 야만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산 사람을 고문하고 화형 시키는 유럽인이,
죽은 사람을 먹는 원주민보다 더 야만적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습과 다른 것을 '야만'이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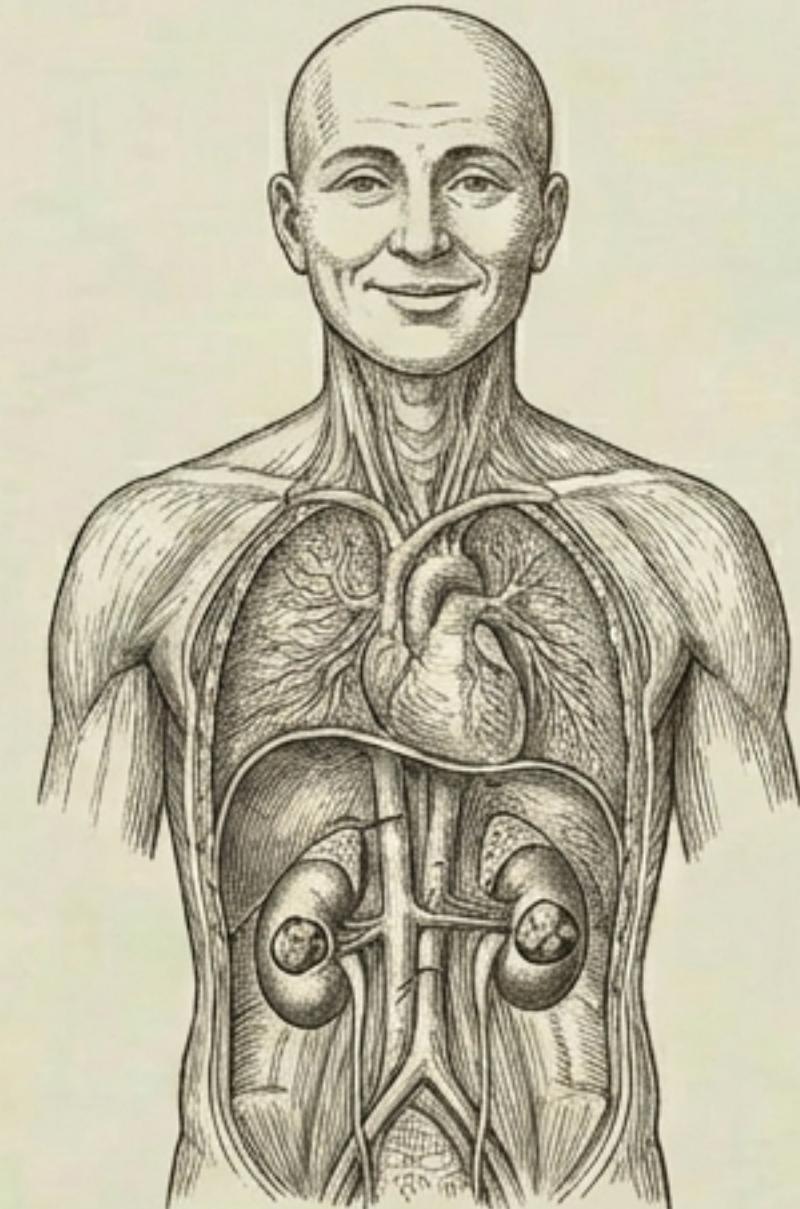
꿀벌의 교육학: 암기가 아닌 소화



몽테뉴는 앵무새처럼 지식을 암기하는 ‘현학자(Pedant)’를 경멸했습니다.
플라톤이 뭐라고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식은 머리가 아닌 삶 속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고통과 동거하는 법 – 신장 결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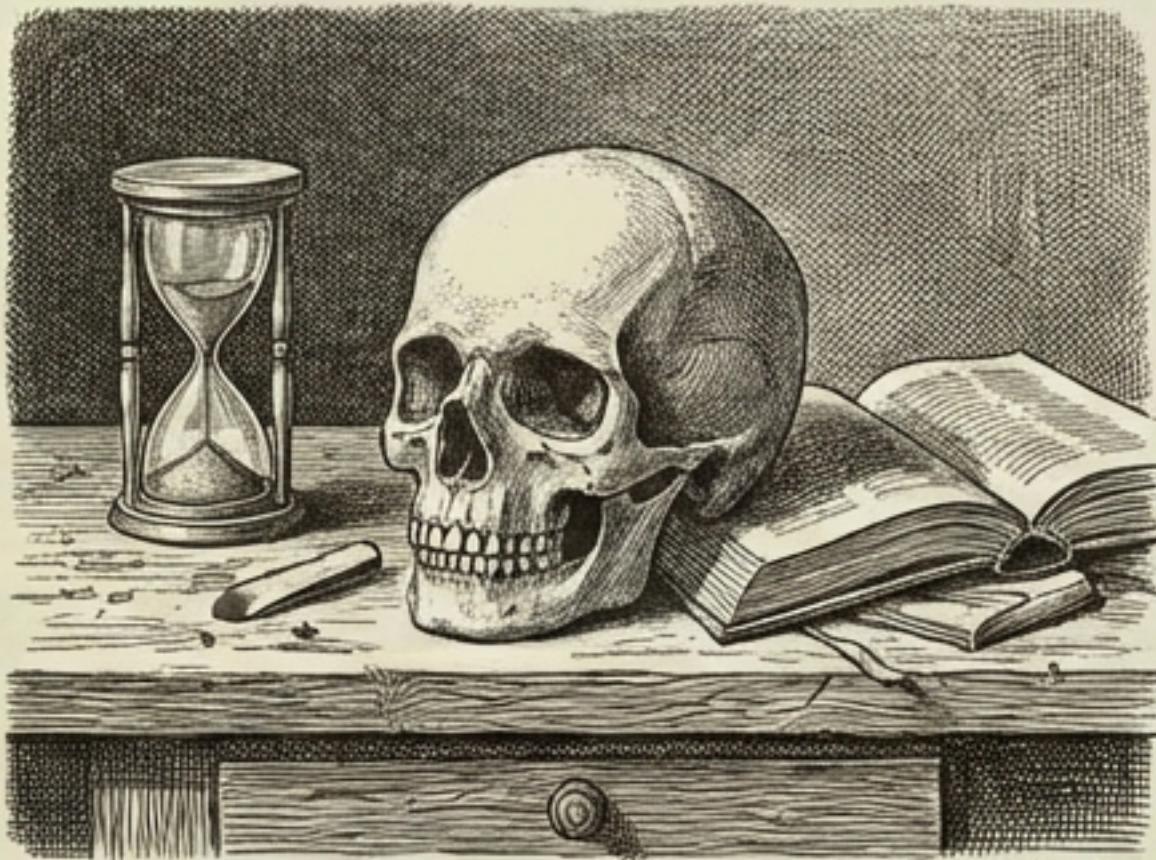
몽테뉴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신장 결석(The Stone)을
평생 앓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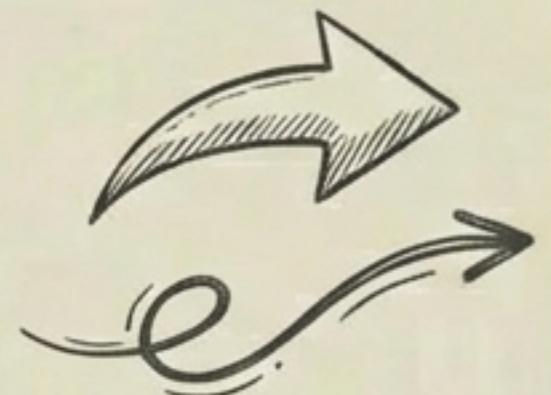
그는 스토아학파처럼
고통을 무시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아플 때는 소리 지르고,
고통이 지나가면
다시 삶을 즐겼습니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 아니라 나의 일부입니다.
고통 또한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죽음, 미리 걱정하여 삶을 망치지 말라



초기: 철학한다는 것은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후기: 자연이 우리에게
죽는 법을 알려줄 것이다.

죽음은 삶의 끝일뿐,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미리 두려워하며
오늘의 즐거움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여행: 타인의 뇌에 내 뇌를 문지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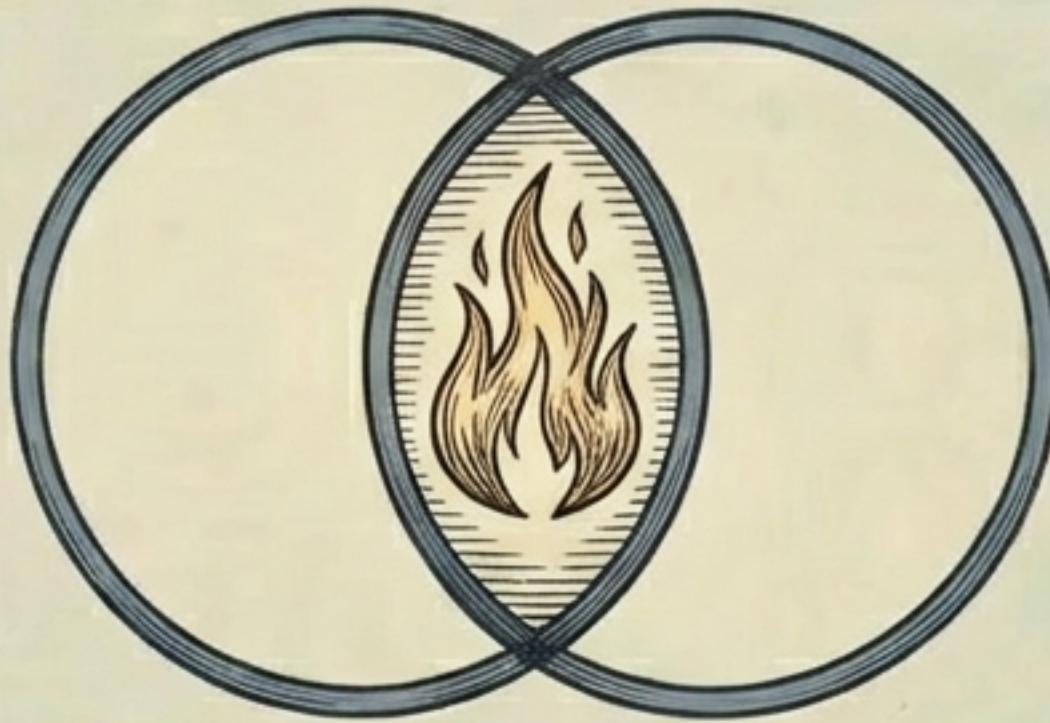
“나는 내가 무엇을 피해 도망치는지 알지만,
무엇을 찾아가는지는 모른다.”

결혼은 계약이고, 우정은 영혼의 결합이다



결혼 = 계약

가문의 존속을 위한 사회적 의무.
사랑보다 우정이 필요.



우정 = 영혼의 결합

목적도 의무도 없는
자유로운 영혼의 융합.

이성(Reason)은 믿을 수 있는가?



우리의 판단력은 열병이나 큰 사고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들에 의해서도 흔들린다.

몽테뉴는 이성을 절대적인 진리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편견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하기 쉽다고 경고했습니다.

❖ 카르페 디엠(Carpe Diem): 현재를 춤추라 ❖

“나는 춤을 출 때는 춤만 추고, 잠을 잘 때는 잠만 잔다.”

위대한 삶은 거창한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먹고, 자고, 대화하는 소소한 일상을
온전히 음미로 음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기술입니다.

위대한 삶은 거창한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먹고, 자고, 대화하는 소소한 일상을
온전히 음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기술입니다.



금서(禁書)에서 인류의 고전으로

“내가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솔직한 모습이다.”
(검열에도 불구하고 수정을 거부한 몽테뉴의 태도)



1580년

초판 출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

1676년

교황청 금서 목록(Index
Librorum Prohibitorum)
등재

오늘날

인류의 고전,
에세이의 기원

후대 거인들의 어깨가 되다



햄릿, 템페스트에 영향



회의주의 철학의 토대



인간의 비참함과
위대함 통찰



이 책을 읽으면
삶의 기쁨이 증가한다

몽테뉴가 우리에게 건네는 4가지 위로



겸손

내가 아는 것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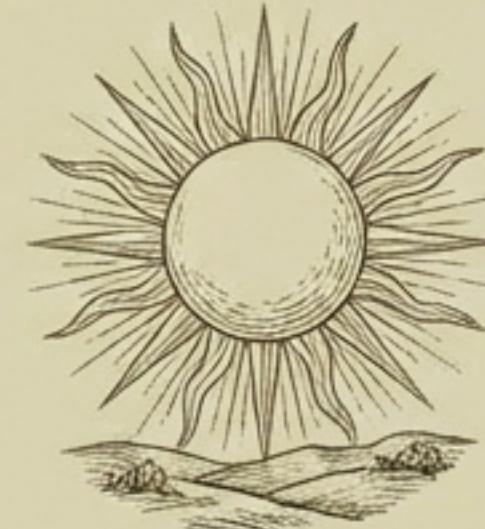
솔직함

완벽하지 않은
나 자신을
받아들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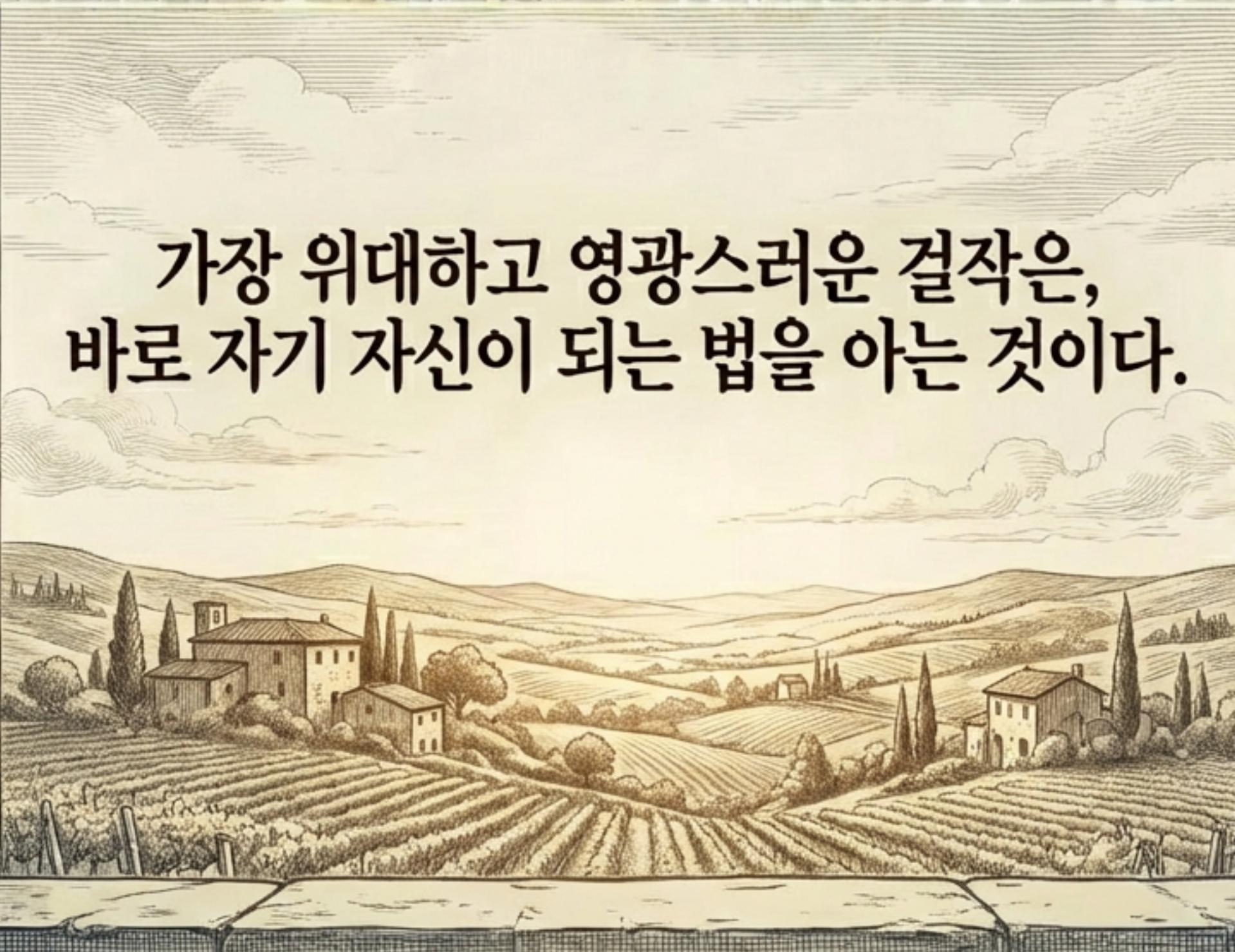
관용

타인의 다른을
비난하지 말고
존중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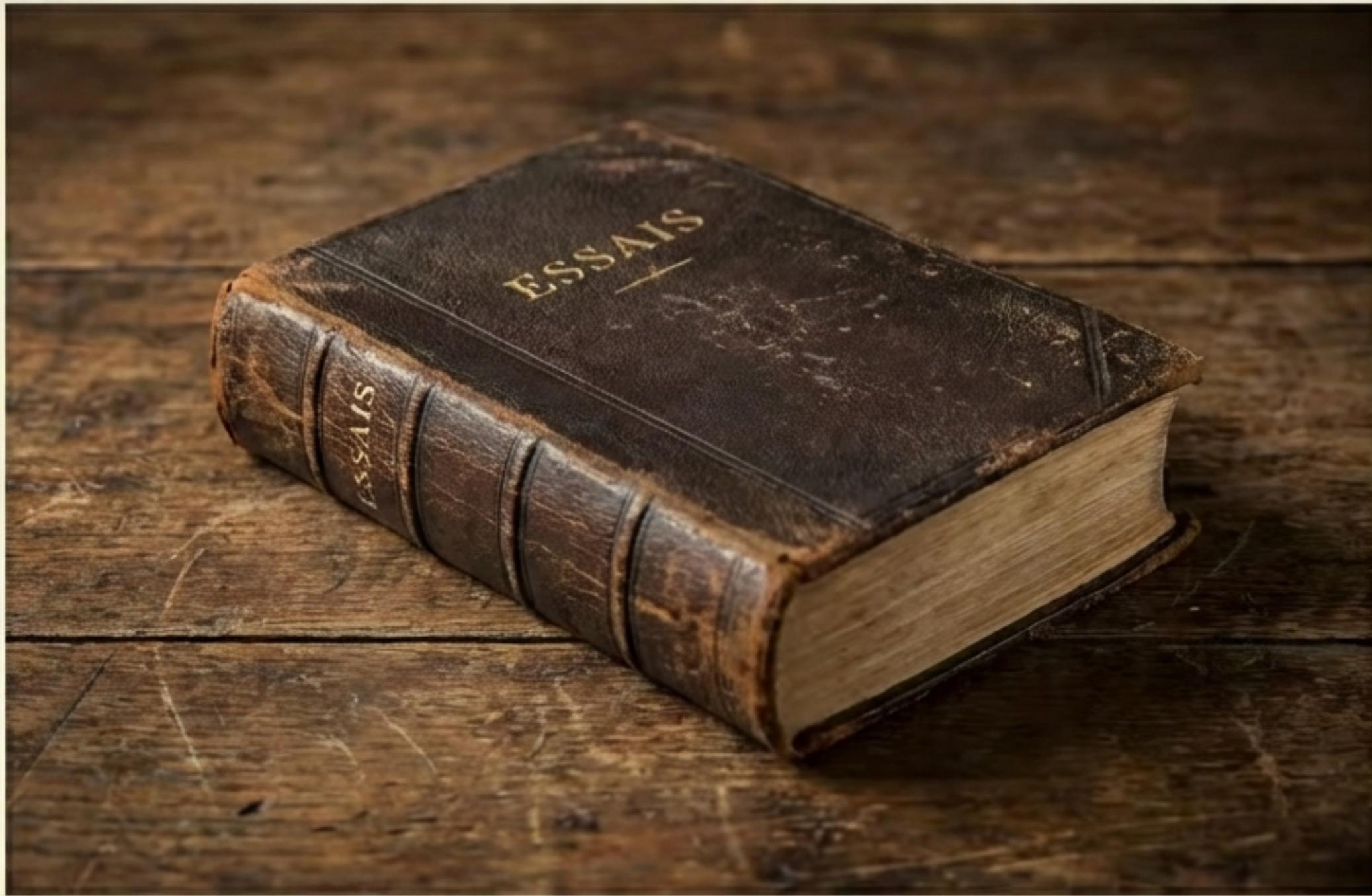
현재

미래의 걱정 때문에
오늘의 삶을
놓치지 말라.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걸작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법을 아는 것이다.

500년 전, 고독한 탑 안에서 자신을 탐구했던 몽테뉴. 그의 솔직한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 ‘나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는 가장 따뜻한 지침서입니다.



Michel de Montaigne (1533-1592)